

맹장 밑에 약졸은 없다

사람들을 이끌거나 움직이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다만 그 권력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관리자가 되기도 하고, 보스가 되기도 하고, 참다운 지도자가 되기도 한다. 권력을 갖고자 하는 것은 태초부터 인간이 갖고 있는 본능일지 모른다. 역사에서 보듯이 권력을 탐하다 비참한 말로를 걷는 인물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반대로 권력을 슬기롭게 이용하여 훌륭한 업적을 쌓은 인물도 많다. 권력은 술과 같아서 사람을 취하게 한다. 권력이 크면 클수록 더욱 취하게 되어 이성을 잃게 만든다. 절대적 권력은 독주와 같기 때문이다.

리더십과 카리스마

우리는 자주 리더십과 카리스마를 혼동하곤 한다. 그리하여 카리스마와 리더십은 서로 정비례한다고 착각하기 쉽다. 카리스마는 '아름다운 선물'이라는 뜻의 그리스어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니까 어원에 따르면 카리스마란 사람이 몸에 지니고 태어나는 것이라고 풀이된다. 이 말은 성공을 함으로써 카리스마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아무리 카리스마가 있어 보이더라도 성공하지 못하면 카리스마를 잃게 된다. 카리스마의 정의를 정확하게 내리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는 금방 느낄 수 있다.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는 복잡한 아이디어를 단순한 메시지로 여과시키는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 지성인보다도 '반(反)지성인'에게서 카리스마를 더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카리스마를 지닌 지도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그는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를 즐긴다. 그는 전례가 없던 일을 하고 싶어 한다. 그는 낙천주의자이며, 관습, 관례와 싸우는 외로운 반항아이다. 특이 체질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의 괴짜 같은 이미지는 카리스마를 증폭시키게 된다.

지도자의 자질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도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지도자가 있다. 그런가 하면 별로 눈에 띄지 않던 사람이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자마자 사람이 달라진 듯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지도자란 선천적인 자질의 소유자인가, 아니면 후천적으로 배워서 될 수 있는 것인가? 지도자 수업을 하고 지도자가 되기 위해 배운다고 해서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는 없다. 그것은 배운다고 좋은 부모가 될 수 없는 것과 같다. 하지만 반대로 천부적인



자질을 갖고 있더라도 그것을 갖고 닦지 않으면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없다. 결론은 노력을 통하여 자신의 자질을 길러 나간다면 누구라도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도자의 조건

지도자란 좋은 품격과 인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지도자로서 일에 대한 지식은 얼마든지 배울 수 있지만 배울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의 품성이다. 아무리 통이 크고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에게도 감정은 있다. 화를 내고 욕을 하고 싶을 때도 있고, 감정의 폭발을 억제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다. 이런 때 중요한 것이 자제력이다. 다른 사람을 통치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흥분해서 냉정을 잃으면 지도자로서는 실격이다. 대단히 원만한 성격의 아이젠하워는 몹시 화가 날 때면 언제나 종이에 그 내용과 상대방의 이름을 적어 그 쪽지를 책상 서랍에 넣고 잠갔다고 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추진한 일이 잘못되었을 경우 그 일에 대해 비판을 받는다면 거짓말이나 변명을 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된다. 하지만 뛰어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솔직하게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구차한 변명을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그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그런 용기가 나올 때는 그 일이 비록 잘못되었지만 동기만은 순수했던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언제나 부하들에게 진실을 말하라, 처음에는 화를 내고 욕도 하겠지만 숨기는 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더욱 더 신뢰받는 지도자가 될 것이다.”

리더와 보스의 차이

- ▶ 보스는 사람들을 몰고 간다. 지도자는 그들을 이끌어 간다.
- ▶ 보스는 ‘나’ 라고 말한다. 지도자는 ‘우리’ 라고 말한다.
- ▶ 보스는 ‘가라’ 라고 명령한다. 지도자는 ‘가자’ 라고 권유한다.
- ▶ 보스는 등 뒤에서 일한다. 지도자는 공개적으로 일한다.
- ▶ 보스는 겁을 준다. 지도자는 희망을 준다.
- ▶ 지도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숨기지 않는다.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보스는 자기의 약점을 숨긴다. 그로인해 권력을 잃을까 두렵기 때문이다.
- ▶ 지도자는 자기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을 가까이 한다. 보스는 자기와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을 미워한다.
- ▶ 지도자는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를 알려준다. 보스는 누가 잘못하고 있는가를 지적한다.
- ▶ 지도자는 권위를 쌓는다. 보스는 권력을 쌓는다.
- ▶ 지도자는 자기 말에 책임을 진다. 보스는 자기 말도 무시한다.
- ▶ 지도자는 대중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보스는 자기 눈으로만 세상을 본다. 

출처 : '리더와 보스' 홍사중 지음